총학생회 음주 개표 논란, 그 이후

지난 955호에서 보도한 '술과 함께한 개표, 개표 결과도 '술술?''을 통해 일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위원들의 음주 후 개표가 사실로 밝혀지며 학우들 사이에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본지는 후속 취재를 진행했다.

이 사태는 비단 이번 개표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음주 개표가 과거에도 이뤄졌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번 총학생회 선거를 총괄했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남균(공법·10)씨는 "그전에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2017년 입후보 당시와 2018년 개표 당시에 위원들 중 일부가 음주 개표를 한 상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바로' 총학생회장 이준배(언론정보·12)씨는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축하 차원에서 전통처럼 음주 관행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음주 개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금까지 없었을까? 이에 대해서 김남균 씨는 "2017년 입후보 당시에도 음주 개표를 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다. 그리고 음주를 한 위원들이 개표에 참여했을지라도 결과엔 문제가 없었다. 〈국민대신문〉이 이 문제를 잘 짚어줬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차기 학생회에 이에 대해 인수인계를 했다"라고 말했다.

결과가 오차 없이 집계됐지만, 개표 과정 중 음주를 한 사실에 대해 학생들은 유감을 표했다. 창의공과대학 소속 휴학생인 A씨는 "모든 전통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음주 개표는 옳지 않은 관행이자 전통"이라고 말했다. 이명동(정치외교·15)씨는 "관행적으로 그래왔다는 점에서 경악스럽고, 중선관위에 실망스럽고 분노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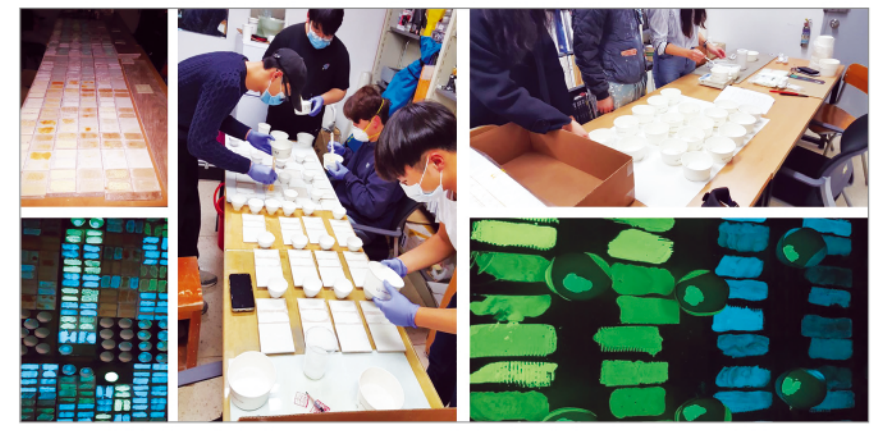
이번 논란에 대해 김남균 씨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운을 뗐다. "아무리 선거 절차 자체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학우들에게 불신을 살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하고 조심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고 말을 이었다.

학생들의 우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중선관위는 해산했기 때문에 모여서 입장을 정리할 권한이 없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하면 학우들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음주를 한 개별위원들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회 임기가 끝나고 인수인계하면서 잘 전달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준배 씨는 "당연히 음주하고 (개표장에) 오는 건 올바르지 않다"며 "(음주 개표) 그 자체는 문제가 맞다. 저희 총학생회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아무리 전통적인 차원이라 해도 맞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 '바로' 총학생회는 음주나 이런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분명히 했다.

박영민, 이시래, 최현서, 라정우 기자

"경쟁력 있는 나를 만들다" 팀팀Class 발표회 열려



▲ 도자공예학과와 응용화학과가 만나 새로운 개념의 유약을 개발했다.

2018학년도 2학기 팀팀Class 운영성과 발표회가 지난달 17일(월) 본부관 학술회의장에서 열렸다. 팀팀Class는 동일한 수강생들이 시민 참여 활동과 Tutorial Class를 포함한 2개의 수업을 동시에 수강하는 융·복합 수업이다. 우리학교는 우리학교만의 핵심역량을 가진 인재육성 및 교육철학(실용주의, 공동체정신) 실현의 일환으로 '팀팀Class'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시니어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조사(調査)는 소통(疏通)이다! △저작권의 역습 △과학예술적 접근, 도자공예 재료 이해 △예술로 경영하기 △아두이노를 이용한 프로덕트 설계 △과거, 현재, 미래의 지도자와 리더십 △미래의 차 솔라카 등의 프로그램이 발표됐다.

경영과 무용의 융합교육을 통해 '2018 성북진경축제'에서 'Hi 성북, 우리 춤 Festival'의 지도를 맡은 방정혜(경영)교수는 "무용 전공 수업을 통해 축제에 대해 공부하고, 소비자행동 수업을 통해 축제의 운영에 필요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학습했다. 함께 페스티벌을 운영하며 문화컨텐츠 기획과 운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경험을 한 수업이었다"며 "각기 다양한 전공들이 어우러져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진실 기자

우리학교 건축학과 학생들, 독도 게스트하우스 디자인 국제공모전 입상

▲ 입상자들이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우리학교 건축학과 학생들이 '2018 Dokdo Guesthouse Design International Competition(독도 게스트하우스 디자인 국제공모전)'에서 대상을 비롯해 우수상, 입선 등 다수 입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지능형 홈 산업화 지원센터'가 주관하고 교육부 'BK21 Well-Formed 스마트 스페이스 디자인 사업팀'과 우리학교 '테크노디자인 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임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으며, 총 91개의 작품이 출품됐다.

출품작은 지난달 17일(월)부터 20일(목)까지 우리학교 종합복지관 지하 1층에 전시됐으며 이중 대상 1작품, 최우수상 2작품, 우수상 31작품, 입선 26작품이 입상했다.

작품 'CAMOUFLAGE'로 대상을 수상한 박서영(건축·18)씨는 "생각지도 않은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좋은 건축가가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제 작품은 동해를 건너가는 철새들에게 독도가 유일한 휴식처가 되어준다는 것에 영감을 받았다"며 작품 설명을 덧붙였다.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들은 향후 작품집으로 발간돼 독도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라정우 기자

(주)FMK, 자동차공학 발전기금 기부

(주)FMK(Forza Motors Korea)가 우리학교에 5천만원을 기부했다. 자동차와 디자인 분야의 연구 지원 등을 목적으로 기부된 이번 발전기금은 자동차공학·소재·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주)FMK 김광철 대표이사는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자동차 공학 연구에 있어 선두에 서 있는 대학인 국민대학교에서, 이번 발전기금을 활용해 자동차공학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FMK는 2017년부터 우리학교 자동차공학 분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기금을 기부해 주고 있으며, 누적 기부액은 9천여만원에 달한다.

박영민 기자

학내단신

◎ 우리학교와 컴퍼니비가 지난 12월 18일(화), 산학협력관에서 창업생태계 조성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대학창업펀드 조성에 나선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동문, 지자체, 민간 등 출자를 통해 대학 내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펀드 조성 및 운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우리학교가 지난 12월 19일(수) 본부관에서 2018년 전통시장 대학협력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전통시장 대학협력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학연협회가 지원하고 우리학교 산학협력단,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정릉아리랑시장 상인회가 공동 추진해 대학생의 아이디어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부터 8개월 간 우리학교와 정릉아리랑시장은 국내 선진시장 탐방을 통한 벤치마킹, 식품영양학과 대학생들과 레시피 전문가의 협력을 통한 특화상품 레시피 개발 등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

◎ 우리학교와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은 지난 12월 19일(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유학생을 무역인으로 양성하여 글로벌 취·창업을 지원하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과의 글로벌 협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협약이다. 이를 통해 우리학교와 서울산업진흥원은 공동으로 무역실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우리학교 학생들 중 특히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무역업 취업 및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북악만평 시도레

국민대신문

발행·편집인 유지수 주간 이의용 편집장 김혜원
주소 (02707) 서울 성북구 정릉로77 1948년 12월 18일 창간
전화 02.910.4293(주간실) / 4294~5(편집실) FAX 02.910.4358
WEB press.kookmin.ac.kr Facebook @국민대신문

957호는 2019년 2월 28일(목) 발행됩니다.